

유암초 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 ⑦ ... 신나는 풍물교실

# 전통가락 '조화의 미' 를 익힌다

유암초등학교(교장 송종길)는 전통가락 속에 들어있는 조화의미를 익히고 전통음악을 직접 감상하고 체험함으로써 정서함양과 더불어 전인적 성장발달에 도움을 주는 '신나는 풍물교실'을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학교 시절 동아리 활동으로 익힌 가야람 교사가 직접 담당하는 신나는 풍물교실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40분 동안 진행된다.

강 교사는 "신나는 풍물교실은 타인과 잘 어울리지 않는 아이들에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주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해에는 호남좌도 입실필봉국을 교육하였으나 포천 관내에서 평가기준이 풍물놀이보다는 사물놀이에 치중하고 있어서 앞반 설정교를 교육하고 있다고 한다.

3~6학년생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학생들 30여명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신나는 풍물교실은 수업 시간마다 복습을 철저히 하여 기본 타법을 완전히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학습 성취도에 따라 각종 대외 행사에 참가하여 안목을 넓히고 경험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강 교사는 신나는 풍물교실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취미활동 및 소질의 신장을 꾀하고 자신감과 성취의욕을 갖게 하여 긍정적, 적극적인 생활인으로 육성하며 진정한 자기사랑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또 전통가락 속에 들어있는 조화의미를 익힘으로써 생활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생활태도를 익히게 된다.

송종길 유암초등학교 교장은 "제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풍물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교사연수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며 "유암초등학교는 가야람 교사가 열정과 관심으로 사비를 들여 연수를 한 후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록 30여명의 학생들이 풍물교실에 참가하지만 이들의 공연을 통해 전교생이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효과도 거양하고 있다.

## 앞반 설정구 학습 진정한 자기사랑 실현



유암초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40분동안 신나는 풍물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송종길 유암초등학교 교장은 "제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풍물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교사연수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며 "유암초등학교는 가야람 교사가 열정과 관심으로 사비를 들여 연수를 한 후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록 30여명의 학생들이 풍물교실에 참가하지만 이들의 공연을 통해 전교생이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효과도 거양하고 있다.

송종길 유암초등학교 교장은 "제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풍물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교사연수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며 "유암초등학교는 가야람 교사가 열정과 관심으로 사비를 들여 연수를 한 후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록 30여명의 학생들이 풍물교실에 참가하지만 이들의 공연을 통해 전교생이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효과도 거양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관인초 교육연극 전국대회 은상

### 전국어린이연극경연대회에서 수상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국립극장 별오름극장에서 개최된 제14회 전국어린이연극경연대회에서 관인초등학교(교장 강재일)가 은상을 차지했다.

'내 마음의 노래'로 참가한 관인초등학교 연극반(지도 심은행 교사)은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은 물론 대본 없는 연극으로 큰 점수를 받았다.

전국어린이연극경연대회는 어린이들에게 잃어버린 놀이를 회복해 주고 연극을 교육적 매체로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199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재미있는 연

극, 우리들의 잔치'라는 주제에 맞게 경연의 형식보다는 어린이들의 잔치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문화관광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연극학회 후원회와 주관해 마련했다.

전국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관인초등학교 강재일 교장은 "아이들에게 순수한 연극의 정신을 교육하고 스스로 무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도한 결과 수상을 하게 됐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국립극장 별오름 극장에서 개최된 제14회 전국어린이연극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차지한 관인초등학교 학생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 경기도 교육사업

### 총 5천666억원 투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법정부담금 4조1천300억원을 제외하고도 교육분야에 약 4천566억원을 투자했다. 교육협력사업 1천300억원, 영어마을 1천400억원,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 900억원, 도서관 500억원 등을 투자했다.

특히 교육협력사업은 민선3기 들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도, 교육청, 시·군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1천643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으며, 그 중 경기도가 1천325억원, 31개 시·군이 556억원, 도교육청이 762억원을 부담했다.

농어촌·중소도시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천20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과학교육에 525억원을, 교육복지 분야에도 160억원을 지원했다.

2006년에도 교육협력사업에 450억원, 영어마을 파주캠퍼스 개원 및 양주캠퍼스 준비 500억원, 도서관 건립 등에도 150억원을 투자하여 교육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혜비 기자 9spice@hanmail.net

## 윤종성의 미국어파라하기

11. (이제) 결심 하셨어요?  
Have you decided yet?  
해부디씨앗드?

\*그건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It's not easy to make decisions.  
잇스낫이지 투메이드씨앗드스?

12.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issue?

\*약간 차이는 있네요.  
That makes a little difference.  
댓메익스어리틀디퍼런스.



문의: 윤종성 (017-723-4977)cdlyoon@nate.com

## 교사 탐구

# 34

외북초등학교 정보부장 김혜림

"무조건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게 되고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모습에서 교사의 진정한 역할을 깨닫게 되었다"며 "百聞不如一見"을 교육철학으로 삼아 아이들의 체험교육에 나서고 있는 외북초등학교 정보부장 김혜림(25·사진)교사를 만났다.



김 교사는 의정부 경의초등학교, 금오여자중학교, 의정부여자고등학교, 청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2002년3월1일자로 외북초등학교에 부임하여 현재까지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초임지에 4년째 근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학교 분위기가 서로 감싸주고 배려하고 학교시설 또한 다른학교에 비해 잘 돼 있는 점이 이곳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김 교사의 교육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 요리도 직접 해보고 영화관람에도 나선다. 마을체험도 실시한다. 최근 실시한 영화관람 교육은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상영한 '컬러부동막골'인데 이 작품을 감

## '百聞不如一見' 체험위주의 교육 실시

### 짜장면데이트로 학생들의 애로사항 파악

상하게 된 것은 강원도와 북한 방안을 참고로 하기 위함이다. 영화내용에 북한사투리와 강원도 사투리가 많이 나온다.

김 교사는 학생들에게 영화관람수업을 하기 전에 미리 영화를 관람하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요소는 없는 지 점검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특히 마을체험에 나갈 때면 처음에는 학생들이 다소 주저했으나 막상 동네에 늘상 있던 우체국이나 농협에 들어가서 관계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면 좀더 친근한 곳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이와같이 체험학습을 통해 느낀점을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리도록 함으로써 무언가 체험의 열매를 거두기도 한다.

김 교사는 "百聞不如一見"을 교육철학으로 삼고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체험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아침에는 한자성어를 연필로 직접 쓰게한다. 샤프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글씨를 정성스럽게 쓰도록 습관을 길러줌으로써 정자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 교사는 재량시간을 이용해 민속놀이경연대회도 실시한다. 공기놀이를 학생들이 편을 나눠 토너먼트식으로 치르게 하고 대회에서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상품도 준다. 칠교놀이, 고누놀이, 윷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통해 학생들의 체험학습도 강화하고 놀이문화 정착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김 교사는 외북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에게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라고 한다. 아이들이 체험학습에 나갈 수 있도록 어떤 곳을 가더라도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직접 도로미로 나서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도시지역보다는 농촌풍경이 많은 지역이라 7차교육과정에 등장하는 지하철, 육교나 철길 건널목에서의 교통질서를 교육하려면 난감하지만 하다. 물론 영상이나 사진등을 통해 지하철이나 육교, 철길건널목 등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지역에 없는 시설이다보니 교육적 한계가 있다고 한다.

특히 7차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체험학습은 도심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지만 외북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대중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학습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여건이 구비되어야 한다.다행이 돌아오는 농촌 학교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는 스쿨버스가 있어 이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외북초등학교에서는 관공버스를 임차해야만 한다. 이것도 교육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김 교사는 외북초등학교에서의 NIE교육은 이 학교 출신 동문이 기증하는 신문으로 교육을 한다고 밝힌다. 박남대 대표가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 신문을 기증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은 선배님의 고마운 마음에 감사의 편지를 모아 전달하기도 했다.

김 교사는 청주교육대학교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으며 내년에 졸업할 예정이다. 졸업 후에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아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을 하고 싶다고 한다. '짜장면데이트'는 김 교사가 학생들과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다. 처음에는 가정과 부모님 이야기로 시작하여 자신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 선생님에 대한 불만, 관심있는 과목과 더 공부하고 싶은 내용 등에 자세하게 대화를 나눈다. 이때 나누는 대화를 토대로 하여 각자의 교육방향을 설정하기도 한다.

풍선공예, 구슬공예, 와이어공예 등에도 관심을 갖고 연수를 받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 교사는 최근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동영상으로 매체를 제작하여 학생들과 공유하기도 한다.

인터넷에 중독된 아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들의 심리적 상황을 잘 풀어주어야 한다. 수업시간에는 가장 엄격한 교사로서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푸근한 품체 때문인지 '엄마'라고 부르는 학생도 있다고 말하는 김 교사의 밝은 미소에서 참 교육의 현장을 읽을 수 있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전기공사 및 소방설비(전기·기계)전문 공사업은 '고은종합전기'에

## □전기설비 고장발생시 긴급출동 후 보수작업

### 취급 공사

- ▶ 공장
- ▶ APT
- ▶ 빌딩
- ▶ 병원
- ▶ 상가
- ▶ 호텔
- ▶ 가로등
- ▶ 기타 전기공사
- ▶ 소방설비공사



공장확장으로 인한 부하설비 증가로 특별 고압 자가용 수전설비 증설 공사 현장

고은종합전기는 오랜 경험과 풍부한 기술력으로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과학적인 설계와 완벽시공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